

▣ 방역대내 비발생 농장 구서방법

- 농장 울타리 밖, 축사 외부,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등 쥐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생석회를 뿌려 쥐의 접근을 차단
- 살서제를 놓거나, 출몰지역에 쥐덫, 독먹이 등 설치하여 구서작업 실시
 - * 닭, 오리가 출하된 직후 구서작업 실시

▣ 살서제의 활용

- 급성 살서제는 하수구, 도축장 같이 장기간 쥐약을 놓을 수 없는 장소에 일시에 구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
 - * 사람이나 가축에 위험이 따르며, 쥐가 해당 약체에 극히 민감하게 기피하므로 구서율이 50% 이하로 효과가 떨어짐
- 만성 살서제는 내부 출혈로 인해 쥐가 서서히 죽게 되며, 쥐가 살서제를 독극물로 인지하지 못해 섭식한 쥐나 동료 쥐들이 계속적으로 살서제를 섭취
 - * 만성살서제는 급성 살서제보다 비교적 구서율이 90% 이상 높음
- (가루용 살서제 사용) 뿌리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미끼 없이 먹을거리가 풍부한 환경에서 구서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
 - 쥐가 서식지에 돌아가 콧수염과 경계모, 발바닥에 묻은 오물을 혀로 핥아서 몸을 청결할 때 체표에 묻은 쥐약을 섭취하게 됨
- (독미끼 사용) 가루용 살서제 적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되며, 미끼용 먹이에 살서제(독미끼)를 뿌려 사용
 - * 쥐약을 놓기 전에 섞은 먹이를 3~4일간 밀밥으로 놓아 미끼로 사용할 먹이에 미리 익숙해지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

축산차량 소독 요령

(거점소독시설, 사료환적장 등)

▶ 글 : 농림축산검역본부

1. 축산차량이 도착하면 차량을 소독장소로 유도하고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다.
2. 차량의 외부 소독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.
 - (차량 바퀴, 몸체) 분뇨, 흙 등 유기물이 있는 경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세척·소독한다.
3. 차량 내부 소독은 소형 분무기로 하되,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를 철저히 소독한다.
 - (발판) 차량에서 꺼내어 소독액이 완전히 젖도록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여 흠뻑 젖도록 한다.
 - (차량 운전대, 좌석)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고 몇 분간 방치한 후 종이타올로 닦아낸다.
 - (운전자의 신발) 발판소독조에 담가 충분히 소독한다.
 - (적재된 축산관련 기구·장비) 고압분무기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.
4. 소독 작업 후 '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'에 기록하고 '소독필증'을 발급한다.